

# 대구광역시



1 단체장 일정



최기문 영천시장은 10일 오후 시장실에서 열리는 유류기증식에서 기증자에게 감사패와 기증증서를 전달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10일 오전 풍기읍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행복 명당 문화센터' 준공식에 참석한다.

## 2025 APEC 유치...인천시 음해공작 경주민심 폭발

편하·왜곡 선동 정치 '선거판' 서 볼 수 있는 흑색선전 신물 난다 경주시, 인천 정정당당 승부해라



관련기사 8면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경주시에 악의적인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비정상 행태마저 공

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편하·왜곡되게 선전하는 정치 선거판에 시나 볼 수 있는 '네거티브'전략이 나오고 있다.

최대 피해자는 경주시다. 유치에 나선 인천시가 경주숙박 문제를 거론하면서 불거졌다.

인천시의 이같은 발언은 경주시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는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경주시가 어불성설이라고 즉각 반격이 나왔다.

주남영 경주시장은 지난 7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계획 현장발표에서 이 문제를 집중 따졌다. 주시장은 프레젠테이션(PT)에 직접 발

표자로 나서 "경주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려를 가진 분들이 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릴 당시에는 대학교 기숙사를 숙소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멕시코의 나스포카스는 인구 6만여 명이 있는 관광 도시지만 마찬가지로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목적을 높였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거들고 나섰다.

이 지사는 기초발안에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주변에 정상을 5성급 호텔, 리조트 등 103곳 4463실의 숙박시설(정부대표단 수요 대비 157%)을 보유하고 있는 상채현황을 설

명하면서 경주 숙박문제를 일축했다.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에 희망을 걸고있는 경주시민들도 인천시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일제히 반발했다.

시민들은 "경주에 와 봤나"고 따졌다.

경주의 숙박 현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런 말을 해야지 인천시가 경주실정을 전혀 모르는 무지의 발언이라고 맹폭을 가했다.

지금 경주는 백년역사를 새로 쓰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뛰어들어 인천제주를 상대로 승부수를 던졌다.

한치양보 없는 치열한 유치전이다.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는 APEC의 포용적 성장가치와 지방균형

발전에 최적 모델은 경주뿐이라는 당위성 논리를 펴 유치에 자신감을 보였다.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에 따른 각종 기반시설을 너무나 잘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경주시는 이러한 점을 집중 조명해 경주발전시키는 초석을 다진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인천, 제주와 함께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후보도시로 선정된 경주시는 서류심사, 현장 실사를 거쳐 이날 최종 프레젠테이션까지 마쳤다.

개최지 최종 발표는 6월20일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를 놓고 경주-제주-인천 3파전으로 양보없는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 김성용 기자

### 1급수 가창댐 오염물질 유입 수질 악화 우려...

댐상류 200여m 암갈색 띠 형성 가장자리에는 푸른색 이끼 자라 정확조 나온 오폐수 가창댐으로 정확조되지 않은 채 유입 될 수도

대구시 수성구와 가창면의 식수원인 가창댐 상류에 오염물질이 유입, 주민건강이 우려된다.

가창댐 상류에는 5일째 약 길이 190m 폭 90m의 짙은 암갈색 띠가 형성돼 있다.

수심이 얇은 곳은 푸른 이끼도 끼어 있다.

주민들은 "지난달 말 가창댐 상류에서 논농사를 짓는 사람이 가축분뇨 퇴비를 눈에 뿌린 뒤 물이 넘쳐 그 물이 상류로 유입, 오염됐다"고 말했다.

대구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오염물질 유입은 "댐 상류 200여 평의 눈에 모내기를 하기위해 트랙터로 가는 과정에서 눈독이 무너져 퇴비가 섞인 눈물 일부가 유입되면서 일어났다"고 농민들로부터 증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가창댐은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에 위치한 1급수 식수원 저수지다.

물이 많아 많은 이들에게 식수로 활용되고 있는 곳으로 상수도보호구역은 개발제한구역보다 엄한 규제를 받는다.

1급수인 가창댐의 원수로 만든 수도물은 수성구 10개동 달성군 1개면으로 낙동강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식수의 질이 좋다고 평이 나온다.

상수도본부는 "가창댐의 관리 주체는 상수도사업본부로 1급수의 수질을 자랑하는 지역이고 댐 주위의 관리 주체는 달성군이다"라며 최선을 다해 복구하겠다고 말했다.

가창댐 유역 관리 주체인 달성군 환경과는 "눈에 비료를 뿌리고 그 물이 들어가 무기질들의 영양분을 먹은 이끼의 색이 변해 그렇게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군은 "약 190~90m 가량의 오염된 부분의 이끼를 청소, 관리지도 9명이 상시 대기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가축분뇨 거름을 주는 과정에서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년이 넘는 오폐수 처리 시설도 문제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창댐 상류에는 4개동 270여가구에 560여 주민이 살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설치한지 20년 넘는 오폐수 처리관을 의심했다.

문제는 정확조가 오폐수 처리시설로 연결된 가구는 반 정도에 불과하다는데 있다.

설치한지 20년이 넘어 안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받은 정확조다.

주민들은 "무엇보다 정확조에서 나온 오폐수가 가창댐으로 정확조되지 않은 채 유입 될 수 있다" 염려했다.

주민들은 "정확조의 오폐수 처리시설로 연결하는 비용이 150억 원이 소요돼 경제성이 없으며, 아직 가창댐 원수가 1급수라는 이유로 추진은 미루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 A씨는 이번사건을 계기로 가창댐 관리와 상수도 보호구역의 오폐수발생원인을 없애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도물이 공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창댐 소장은 "오염물 유입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속하게 오염물질을 제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조여은 기자

### 중앙아프리카에 울려 퍼진 경북 새마을운동...

중아공 대통령, 경북도 방문 새마을운동 협력방안 논의

포스탕 아르상제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일행이 지난 7일 도청을 찾았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새마을운동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투아데라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참석 후 국가변혁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경북도를 방문했다. 방문단은 경북도의 새마을운동을 극찬하고 중앙아프리카가 빈곤에서 탈출하고자 새마을운동을 자국에 확대해 시행할 것을 시사했다.

중앙아프리카는 1960년 프랑스에서 독립 후 계속되는 내전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였으나 1991년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으로 안정을 되찾았다. 주요 산업은 농업과 광업으로 세계적 카카오 재배와 커피 콩 생산지이며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풍부하다.

현재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약 427달러 수준이다. 국민이 하루 2달러 이하의 돈으로 생활하는 열악한 국가이다.

2022년 이후 두 번째 경북도를 방문한 투아데라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뤄낸 개발도상국에 본보기가 되는 국가"라며 "대통령실 산하 한-중아공 새마을위원회 설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아프리카에 새마을을 거버넌스가 마을 단위부터 시작해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모든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2022년 방문 후 우리만의 새마을운동인 콰티 코드로(Kwa Ti Kodro)를 시작했고, 경북도에서 노하우를 전수받아 하향식과 상향식 양방향 새마을사업을 진행



포스탕 아르상제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지난 7일 경북도청을 방문, 이철우 경북지사와 면담 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발전과 새마을운동의 성공을 위한 경북도의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한다"며 "중앙아프리카도 전국 곳곳에 새마을운동 정신이 보급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대한민국은 오랜 식민지 등으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국가다. 한국 근대화의 원동력인 새마을운동, 한국문화, 디지털 등이 중앙아프리카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북에서 시작된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중앙아프리카 현지에서 인재 양성과 농업혁신으로 이어져 마을 단

위에서 시작해 지역사회, 국가 발전 나아가 중앙아프리카 번영과 풍요로운 미래를 가져오길 기대한다. 중앙아프리카 성공을 위해 경북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2022년부터 고위급 새마을초청연수, 국가변혁사업, 새마을연구소 등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 기업인 아진산업(주)의 글로벌 기업 사회적 책임(CSR) 사업비 17억을 유치, 지난해 11월 8일 중앙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새마을재단을 통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새마을사업에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성용 기자

##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정안건설**

정안건설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합니다  
창의적인 생각과 열정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건설하고,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북 저출생 극복 성금 29억 돌파...

대구의 기업 경영자들이 경북도의 저출생 극복 성금 모금에 동참했다. 대구경영자회 회장단은 지난 7일 경북도청에서 저출생 극복 성금 60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북도에 전달했다. 대구경영자회 회장단 기업들인 (주)동원약품(회장 현수환), 우성철강(회장 김영

만), 대영전자(회장 백서제)는 각 2000만원씩 기부했다. 백서제 대구경영자회 회장은 "기업인으로서 저출생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기업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구시, 영남권 최초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13개 분야 170여 종 데이터 등 연계제공 수도권까지 방문했던 불편 해소 기대감...

대구시가 '데이터안심구역 지역거점 구축 및 운영 사업'에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지역 산업구조와 데이터 수요 등에 특화된 데이터 제공·활용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결과다.

데이터안심구역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활용 가치가 높은 정부, 기관 및 기업의 데이터를 누구든지 안전한 환경에서 분석·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민감한 데이터의 유출 우려를 해소함과 동시에 양질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 데이터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다.

대구시는 경북대학교,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성알파시티에 소재하고 있는 대구스마트시티센터 내에 개인 분석실, 분석랩, 데이터백출실 등의 시설을 갖춘 데이터안심구역을 구축한다.

대구 데이터안심구역은 모바일리티와 스마트시티를 지역 특화산업 분야로 선정하고, 미래산업 육성, 기업 창업 및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위해 기업과 시민들이 가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구 데이터안심구역은 영남권 최초의 데이터안심구역으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에서 이미 구축한 데이터안심구역(서울센터, 대전센터)의 13개 분야 170여 종 데이터 등을 연계해 제공, 수도권까지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데이터안심구역은 6월 중 협약체결하고 연말까지 구축을 마무리한 후, 1개월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문연다.

향후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기업, 학생, 연구자, 시민들이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데이터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데이터 기반 신규 비즈니스 창출도 지원한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데이터안심구역에 그동안 미개방된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해 지역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데이터안심구역의 기능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대구 데이터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2024 경북살이 청년실험실 팝업스토어 개최

경북살이 청년실험실 중심으로 적극 지원...

경북도는 8.9일까지 청년 복합문화 공간인 대구 무영당에서 '2024 경북살이 청년실험실 팝업스토어'를 개최했다.

무영당은 폐공간(옛 백화점)에서 문화예술이 만나는 복합 창작 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이다.

행사는 경북을 벗어나 대구 등 다른 지역 청년들에게 '경북살이 청년실험실'을 홍보하고 각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로컬 콘텐츠의 상품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획됐다.

팝업스토어의 2층은 청년실험실의 사업 소개, 프로젝트 전시, 아카이빙 영상 등을 통해 경

북살이 청년정책의 브랜드를 홍보했다.

3~4층에서는 청년실험실에서 개발된 위스키 커피, 디자인 굿즈, 농창업 제품 등을 판매하고, 푸드 콘텐츠 촬영 및 스타일링 스튜디오, 모자이크 디자인 채우기, 토마토 모종 심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됐다.

로컬전문가와 참여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를 위해 전종훈 마르텔로 대표, 도원우 리플레이스 대표, 성주현 피카차일드컴퍼니 대표, 심영민 제이사디자인 대표와 함께하는 LAB-UP 토크쇼와 네트워킹 파티도 진행했다.

경북살이 청년실험실은 청년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창업과 경력 개발 지원으로 지역 내 일감을 연계시키고, 시군과 함께 지역 유희공간을 커뮤니티 공간, 숙소 등으로 조성해 청년 실험실의 활동 공간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영주 실험실(로컬디자인프로젝트)은 로컬 푸드를 활용한 레시피 개발과 푸드 콘텐츠 브랜딩 지원으로 F&B분야 취창업을 꿈꾸는 프리랜서들을 지원한다.

경산 실험실(프리리랩)은 청년 디자이너와 지역산업을 잇는 온오프라인 디자인 플랫폼을 조성하며, 성주 실험실(소풍마을)은 소풍을 컨셉으로 농창업 관련 로컬 콘텐츠를 개발, 농(N)잡러 청년 프리랜서들과 함께 지역의 가치를 만들고 있다.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로컬의 매력을 활용, 새로운 기회를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경북살이 청년실험실'을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오늘 대구시의회, 제309회 정례회 개최...

후반기 의장단 선출 2023회계연도 대구 결산 등 안건 심사



대구시의회는 10~27일까지 18일간 제309회 정례회를 연다.

2023회계연도 대구시 결산승인(안) 및 제계정 조례안 등 28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 방문, 제9대 의회 후반기가 이끌어 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회기에 예·결산안 5건, 제계정 조례안 18건, 동의안 5건 등 총 28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10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한다.

11~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현장 곳곳을 방문해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시정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핀다.

20,21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숙)를 열어 대구시와 시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대구시 교육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지난해 결산액은 세출 기준 대구시 10조 3828억원, 시 교육청 4조 640억원으로, 예결위는 대구시와 시 교육청의 재정운영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24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류종우(북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물가안정을 위한 대구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이성오(수성구3) 의원은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처리한다.

25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나갈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26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27일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한 후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조미경 기자

성주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올인

2025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중간보고회'

성주군이 '2025 지방소멸대응기금 계획(안)'을 마련한다.

지난 4일 열린 중간 보고회에 군의원, 성주군 인구정책위원회, 실과소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2025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우수등급을 확보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 기금 배분 기준 변경에 따른 적합한 투자사업 및 보완방안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저출생과 전성' 선포에 따른 저출생 극복 역

계사업으로 △정주인프라 구축 △맛춤형 생활 서비스 구축 △로컬산업 활성화 △로컬콘텐츠 다각화로 생활인구 유입 등 인구유출 방지와 지역역량 제고를 위한 5개 사업, 160억원의 다양한 사업을 구상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인구감소 방지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성주군만의 특색 있는 발전전략을 구상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계획수립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사업발굴, 주민 설문조사 실시, 행정안전부와 경북도 주관 컨설팅 참여 등 투자 계획 수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22~2024년까지 총 9개사업 258억3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도재훈 기자

영양군, 366억원 규모 '2025년 농촌협약' 공모 선정!

청송·영양 2농촌협약공모 최종 선정 청송군, 346억 규모 사업 신청 선정 영양군, 366억 규모 사업비 투입...

청송·영양이 살기 좋은 고을로 탈바꿈한다. '2024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탓이다.

2024년 농촌협약 공모에서 도내 7개 시군이 선정돼 국비 2100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4년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된 9개 시도 중 전국에서 가장 많은 7개 시군(포항, 김천, 안동, 경산, 청송, 영양, 영덕)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농촌협약은 시군이 주도해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향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도 및 시군 공동 투자로 365 생활권 구축 등 공동의 농촌정책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365 생활권은 30분 내 보건보육소매 등 기초 생활 서비스 접근,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 서비스 접근 보장,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을 이룬다.

■청송군 청송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4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농촌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시·군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 스스로 수립한 발전 방향에 따라 집중투자한다.

군은 이번 공모에 총 346억(국비 241억) 규모의 사업을 신청, 선정됐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의 거쳐 세부 계획 조정 후 최종금액이 확정된다.

군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추진 중인 청송읍을 제외한 7개 면을 대상으로 △진보면 농



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부남·현동·현서·안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주왕산·파천면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한다.

2025년 협약 체결 후 2029년까지 5년간 사업이다. 군은 이번 농촌협약 공모를 위해 2022년부터 관련 조례 제정, 전담 조직 구성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주민현장포럼, 농촌협약위원회 개최, 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했다.

무엇보다 사업 내용을 확정하는 등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농촌협약으로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로 인구 감소는 물론, 지역의 부족한 생활서비스 시설에 대한 집중 투자하는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촌협약이라는 제도를 통해 더 살기 좋은 청송군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집중·장기적 투자로 군민 뿐 아니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에게도 만족스러운 삶

일·쉼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양군 영양군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2025 농촌협약' 대상에 최종 선정됐다.

영양군은 이번 선정으로 2025년부터 5년간 366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거점육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농촌생활권을 활성화해 나간다.

군은 협약 선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2022년부터 농촌공간전략 계획과 농촌공간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전문가 컨설팅을 비롯한 사업 부서 및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로 완성된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은 사업추진 가능성, 추진 의지, 조직 구성 등의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협약으로 영양읍은 160억원 규모의 영양버스타미널 복합화를 추진한다.

입암일월수비석보면의 지역 거점시설 건립(각 40억원)과 청기면의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으로 관내 6개 읍면 공공 전체의 농촌다움 복원과 생활서비스 기능 강화에 적극 나선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농촌협약으로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일자리·주거경제기반·사회서비스 확충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은 올해 연말까지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보완, 내년 상반기에는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윤병문 기자

권운홍 기자



# 경북 광역기초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 뭘 남길까?

## 도·시·군정질문,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각종 민생조례안 등 안건 처리 청례회 마무리

경북도내 광역 기초의회에서 정례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다.

###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제347회 제1차 정례회가 10~2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정례회 기간 도정질문,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10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선희(경도), 황명강(비례), 김경숙(비례) 도의원이, 제2차 본회의에서는 남영숙(상주), 허 복(구미), 박재아(경산)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제3차 본회의(6월21일)에서는 '경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51건의 조례안과 경상북도 공유 재산 사용료 감면 등 동의안 4건, 경북도와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도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례 제개정과 포항·구미 특화단지 유치,

부탁했다.

영천시 교육발전특구 지정 공모 추진과 관련, 단순히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이번 공모 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길 당부했다.

저전력 지능형 IOT 물류 부품 상용화센터,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등 총 5개의 연구기관에 대해 영천시의 핵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신기술을 개발하고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영천시에 위치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인재 양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다방면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기태 영천시의회 의장은 "이번 간담회에 접수된 여러 안건들에 대해 심도 있게 나누어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우리 시의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같은날 영천시의회 인구감소 대책 특별위원회도 제3차 회의를 열어 집행부 소관부서인 인구교육과의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들었다.

영천시 인구감소문제를 시의회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구성된 인구대책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집행부 인구정책에 대해 의원들의 심도 높은 질의와 함께 정책제언들이 이어졌다.

배수에 시의원은 인구감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인구정책과 관련된 집행부 부서장 전체가 모이는 토

의, 국민의 힘, 마선거구, 휴전2·3동) △영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유충상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 힘, 나선거구, 하망동, 영주1·2동)이 있다.

심재연 영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회기는 집행부에서 1년 동안 추진한 업무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의미있는 회기로써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성의껏 답변하고,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고 정책에 대한 개선의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경산시의회

경산시의회는 지난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55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정례회 동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산시 경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2024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을 포함한 일반안건 4건으로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위원으로 위원장에 김화선 시의원, 부위원장에 손남식 시의원, 위원에 양재영, 안문길, 이동욱, 김상호, 강수명 시의원으로 모두 7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정례회는 7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부터 13일까지 상임위원회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예비 심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한다.

안 등 심사, 28일 본회의를 열어 기타 안건 등을 의결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시의회는 제315회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와 행정사무감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포함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 ■안동시의회

안동시의회는 10~19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0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 제249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인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집행부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는다.

11~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종 안건 및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다.

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집행기관에서 추진해 온 시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날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권기운 의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사진은 경북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모습



사진은 예천군의회 직무교육 및 선진지 벤치마킹 활동모습

안동·경주·울진 신규 국가 산단 선정 등 경북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의정역량을 집중해왔다"며, 제12대 도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12대 전반기 도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경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대구경북신공항 복수 화물 터미널 설치를 강력하게 촉구해 나갈 것"을 강조한다.

### ■영천시의회

영천시의회는 지난 5일 의원 및 집행부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교육발전특구 지정 공모 추진 등 12건과 의원발의 조례안인 '영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주학 의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시의회에 따르면 영천시-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서는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숙소, 근로환경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인식, 빈집, 폐교 등을 활용한 공공형 숙소 마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대할라고 했다.

영천한약축제에 대해 식당과 먹거리의 부족, 장소 협소, 접근성, 축제버스 운영미흡 등 방문객으로부터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된 만큼 향후에는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천 보현산립 출렁다리 환경개선 대책과 관련, 개통 이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면서 화장실 부족 및 환경 정비 등의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 제조업체 등에 개별히 신경을 써서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애써주길

문회를 제안했다.

이영기 시의원은 24시간 아이돌봄센터와 육아보조금 지원정책을 제안, 양육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저출산 문제가 극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호 시의원은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 이영우 시의원은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제안했다.

관기한 위원장은 타 지역 인구정책 우수사례를 살펴볼 것을 집행부에 제안, 특위 의원들의 전체적인 정책 제언들을 토대로 인구정책의 큰 틀을 마련, 인구감소문제에 대응할 것을 주문하면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 ■영주시의회

영주시의회 제282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7~18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회의 3일, 상임위원회 활동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1일, 의정자료 수집 활동 4일이 예정돼있다.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6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한다.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영주시장 제출 조례안 3건, 의견청취 1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영주시 출연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전종립 의원 대표발의, 무소속, 마선거구, 풍기읍, 안평면, 봉현동) △영주시 학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숙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 힘, 마선거구, 휴전2·3동) △영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전규호 의원 대표발

14~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재원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됐는지 구체적으로 심사한다.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최종 의결한 후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박순득 경산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를 실시하는 중요한 기회이다. 당초 편성된 예산이 계획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세심하게 살펴 주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포항시의회

포항시의회는 10~28일까지 19일간 일정으로 제315회 제1차 정례회 활동에 들어간다.

정례회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26개의 안건을 처리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김성조 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포항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방진길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제출돼 있다.

첫날인 1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1일~18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9일~20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다.

21일 각 상임위원회별 결산 예비심사,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25일~27일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

의결한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회부된 각종 안건들을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농수산물도매시장을 채택한 후 폐회한다.

19일 제1차 본회의 개회에 앞서, 안유안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안동의 근현대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한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을 통해 정책제언을 한다.

### ■예천군의회

예천군의회는 지난 4.5일까지 2일간 경주시와 포항시 일대에서 의원과 직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의회 직무교육 및 선진지 벤치마킹을 했다.

군의원과 직원들은 4일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소속 지방의정연수센터가 주관한 '경북지역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교육'에 참가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극복을 주제로 한 지역현안 특강을 들었다.

경주 동궁원 내 버드파크를 방문, 예천남산공원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례로 현장 시찰을 했다.

5일 오전에는 포항시 평생학습원을 방문해 이강덕 포항시장과 환담을 갖고, 평생학습원 관계자로부터 시의 평생교육 운영 관리 및 시설 현황 등을 청취한 뒤 현장을 둘러보며 예천 평생학습도시 선정 이후의 발전 모델에 대해 비교시찰했다.

국내 굴지의 기간산업 현장인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 지역 특화 산업단지 조성고 핵심산업 발굴·유치에 대해 벤치마킹을 했다.

최병욱 예천군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과 견학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와 맞춤형 선진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의원의 직무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고, 예천 실정에 맞는 선진 사례를 접목시킬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방총합



# 경북도내 일선 지지체 영농철 일손돕기 바쁘다 바빠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넘어 도로변 환경정비, 주변에 꽃을 심는 등 깨끗한 도시만들기...

일선 지지체마다 농촌일손돕기에 소매를 건어 부쳤다.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봉사활동을 넘어 도로변 환경정비, 주변에 꽃을 심는 등 깨끗한 도시만들기가 한창이다.

### 고령군, 농촌일손돕기

고령군 운수면과 지역경제과 및 대가야박물은 지난 7일 양파 수확에 한창인 운수면 운산리에 있는 농가를 찾아 일손을 도왔다.

최근 인력부족, 인건비 상승, 양파생육 불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서다.

이날 20여 명의 직원들이 5,000㎡ 면적의 양파 순자르기 작업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농가는 "올해는 고온, 강우, 일조량부족으로 양파 생육불량 등의 피해도 심한데다가 일손도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었는데 고령군청 공무원들이 참여, 농업 현장의 걱정을 덜어주어 감사하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최희준 운수면장은 "일손 부족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가에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보탬 수 있어서 보람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영천시 농촌일손돕기

영천시 금호읍은 지난 7일 마늘 수확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의 마늘농가를 찾아 일손을 도왔다.

금호읍 직원들은 마늘 수확에 일손을 보태며 진정한 농촌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일손 돕기를 요청한 금호읍 냉천리의 한 농가는 원인 불명의 문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000여 평의 밭에 마늘 생육이 전혀 되지 않아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늘 밭 농가주는 "피땀 흘려 지은 농사가 뜻대로 되지 않는 바람에 힘든 심정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서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 이겨낼 힘이 생긴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종홍 금호읍장은 "불의의 사고나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읍민들에게 힘을 불어 넣기 위해 다각도로 지원책을 모색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화북면 직원들도 지난 5일과 7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2개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에 나섰다.

화북면 마늘 재배농가의 요청으로 오산리, 오동리의 마늘밭 3327㎡에서 마늘 줄기 절단 작업에 힘을 보탰다.

권영철 화북면장은 "농촌일손 돕기로 농민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의성소방서 농촌일손돕기

의성소방서는 의성군 금성면에 위치한 마늘 재배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에 나섰다.

농촌일손돕기는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영농인력 지원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의성소방서 직원 33명이 참여하여 마늘밭에서 마늘 수확 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마늘 재배 농가 관계자는 "더운 날씨에도 일손이 필요한 농가들을 위해 바쁘고 나서주셔서 감사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진욱 의성소방서장은 "일손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위해 직원들과 함께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구미도시공사, 영농지원 봉사활동

구미도시공사는 구미시 무열면 무동리 소재 포도 농가를 찾아 영농지원 봉사활동으로 인력난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일손을 보탰다.

영농지원은 농협 '국민과 같이 농촌봉사활동' 사업과 연계, 구미도시공사 임직원 40여명과 농협중

양회 구미지부 직원들 등 총 50여명이 포도 순따기 등 일손돕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재웅 구미도시공사장은 "영농철 일손부족으로 지역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사회를 위해 영농지원에 함께해주신 농협중앙회 구미지부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상생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협력으로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미도시공사는 '같이 Plus+' 사회적가치 브랜드를 내세워 지역사회공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지역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영천시, 주택수리 봉사활동

영천시 자양면 새마을협의회는 충효2리에 사는 홀몸노인의 집을 찾아 주택 수리 봉사했다.

봉사활동은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거 취약 가구의 노후된 시설을 정비해 시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실시했다.

각 마을지도자들은 이른 시간부터 집안 구석구석을 수리하며 어르신들의 생활에 불편함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다.

어르신은 "집이 깔끔하게 수리돼 마음이 한결 편하다"며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봉사활동을 이끈 한기범 자양면새마을협의회장은 "만족해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보탬이 되는 새마을협의회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상주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상주시 북문동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원 20여명은 관내 홀몸노인 가구를 찾아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했다.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상주시의 지원을 받아 홀몸노인, 차상위계층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이웃사랑 실천 봉사활동이다.

새마을남녀지도자 회원들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노후된 도배 및 장판 교체, 대청소 등 집수리에 구슬땀을 흘렸다.

김중학 협의회장과 강연숙 부녀회장은 "어려운 이웃을 향한 봉사활동에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가 항상 앞장서서 모두가 행복하고 더불어 사는 북문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종원 북문동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이웃을 위해 귀한 시간과 힘을 보태 준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따뜻하고 발전하는 북문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영주시, 도로변 환경정비 실시

영주시 휴천3동 새마을지도자 회원들은 지난 7일, 쾌적한 도로변 조성을 위해 풀베기 등 환경정비 활동을 했다.

회원들은 이른 새벽부터 관내 적서로(노벨리스 코리아 ~ 환경사업소) 구간 도로변 일대를 중심으로 잡초 제거 및 풀베기,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비 활동을 했다.

해당 구간은 차량 통행이 잦고 도로 폭이 좁아 풀이 많이 자라면 통행에 방해가 되는 구간이다. 매립장으로 쓰레기를 운반하는 차량이 많아 도로변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해, 환경정비가 필요했다.

권남석 휴천3동장은 "풀베기 및 환경정비 작업에 앞장서 해주신 휴천3동 새마을지도자 회원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화 작업을 실시해 아름다운 휴천3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영주에 꽃냄을 솔솔

영주시 휴천1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5일, 관내 주요 통행로에 향기로운 꽃을 심어 주변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고 도로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의 환경정비 활동을 했다.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지난 3월 봄을 맞아 심었던 꽃들을 정비하고 여름을 맞이해 휴천1동 관내 주요 산책로를 색색의 다채로운 주민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김순덕 새마을부녀회 부회장은 "햇살 가득히 내리는 여름을 맞이하며 주민들이 자주 통행하는 곳

에 꽃길을 조성, 향기가 가득한 휴천1동을 만들기 위해 힘을 쓰고 있었다. 언제나 솔선수범하는 부녀회가 되어 앞으로의 봉사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배동직 휴천1동장은 "휴천1동이 깨끗한 환경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앞장서주신 부녀회에 감사드린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휴천1동 새마을부녀회는 관내 꽃길 조성 등의 다양한 환경정비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형성과 깨끗한 휴천1동 조성하기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영주시 평은면도 지난 5일, 여름을 맞아 평은면 행정복지센터 청사 내 화분 20개에 페튜니아 꽃모종 600그루를 심어 주민들에게 활기찬 여름이 왔음을 알렸다.

행사에는 평은면장 등 공무원 2명, 노인일자리 사업 어르신 4명이 참여, 모종 한그루를 화분에 담아 정원을 가꾸어 나갔다.

김호정 평은면장은 "이번 여름은 영주담 준공 이후 첫 휴가철로 관광객 증가가 예상된다"라며 "방문객들에게 생기가 넘치는 평은면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평은면은 지난해부터 아름다운 평은면 조성에 따라 봄에는 팬지, 여름에는 페튜니아, 가을에는 메리골드를 식재하고 관리하여 사시사철 생기가 넘치는 평은면을 만들어가고 있다.

### 문경시, 힐링 꽃밭 조성 사업

문경보건소는 호계면 호계리 등 건강마을 8곳의 주민이 다 함께 참여, 마을별로 쉼&힐링 꽃밭을 만들었다.

쉼&힐링 꽃밭 만들기는 주민 주도하에 자발적인 참여로 마을공동체 주민들이 모두 모여 다 함께 생활하는 여유 공간을 활용, 작은 꽃밭을 만들면서 지친 마음을 힐링하고 쾌적하고 쉽고 여유가 있는 마을환경을 조성한다.

올해 4년 차에 접어든 호계면 건강마을은 주민이 함께 마을의 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주민 주도형 사업이다.

건강위원회 운영, 건강 동아리 활동, 건강생활실천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이웃 간 교류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건강한 마을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박애주 문경보건소장은 "주민 주도적 활동을 통해 이웃 간 서로 돕고 소통하는 훈훈한 마을 분위기를 조성으로 주민의 지친 마음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해병대에천군전우회, 환경정화

사)해병대에천군전우회는 지난 6일 삼강문화단지 일원에서 쓰레기 및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

환경정화활동은 예천 삼강남나들이 축제 개최에 맞춰 축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해병대 회원 10여 명이 참가해 구슬땀을 흘렸다.

해병대에천군전우회는 매년 수중정화활동, 우범지역순찰 등을 실시하고, 예천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와 축제에서 교통 봉사 활동을 하는 등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장영구 해병대 예천군전우회 회장은 "더운 날씨에도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해주신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산시 풀베기사업

새마을지도자진량읍협의회는 5.6일 이틀간 여름철을 대비해 경산3산업단지 일대에서 풀베기 사업을 했다.

풀베기 작업에는 회원 20여 명이 참여, 신제지 근린공원 등 경산3산업단지 일대에 자라난 잡풀, 넝쿨 등을 제거하고 웃자란 가지를 정리하는 등 제초 작업과 함께 주변 쓰레기를 수거해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슬땀을 흘렸다.

차윤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앞으로도 솔선수범해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환경정화 활동 등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재열 진량읍장은 "진량읍도 하천, 저수지, 연도변 등 방역 및 풀베기 사업을 진행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산책 및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방총합



경산시새마을지도자진량읍협의회풀베기



고령군 농촌일손돕기



문경시 건강마을 힐링 꽃밭 조성 사업



상주시 북문동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영주 환경정비 참석자들이 가로화단에 꽃을 심고 있다.



영천시 화북면 마늘 수확기 농촌일손돕기에 구슬땀



해병대에천군전우회 삼강문화단지 환경정화



영덕 청송  
영양 청도  
울릉 울진



영양군, 복지안전망 강화

영양군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인적 안전망인 영양군 행복기동대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장, 부녀회장 등으로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1인 가구 스마트플러그 안부확인 사업,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홍보 계몽운동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복지안전망을 강화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고독사 문제에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속적인 논의와 노력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덕군, 찾아가는 한방의료봉사

영덕실버복지관이 마련한 '찾아가는 한방의료봉사'가 1박 2일 일정으로 영덕군 병곡·지품면에서 열렸다.

봉사는 병곡면 140명, 지품면 140명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대구한의과대학 이봉효 교수와 정광호 지도한의사의 한방 침밴드 특강, 40명의 예비 한의사들의 진단, 상담 그리고 침, 뜸, 부항, 한약재 등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로 참여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박미숙 관장은 "현재 영덕군의 유일한 실버복지관으로서 주민의 건강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송군, 대상포진... 96%접종완료

청송군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난달 7~30일까지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결과 현재까지 4821명이 접종을 완료했다.

예초 65세 이상 인구 5000명을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주민들의 큰 관심에 힘입어 한달 만에 목표 인원의 96%인 4800여명이 접종했다.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의료기관에 전화 문의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시행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영덕군, '국제웰니스관광도시'로 힘찬 도약

인도 바나라스힌두대학교 김광열 영덕군수와 오찬 영덕국제웰니스페스타 2024 성공 개최 우정다져



메디푸드 산업은 영덕군의 미래 발전 전략산업이 기도 하다.

이후 일행은 영덕군 창수면에 있는 우수 웰니스 관광지 '인문힐링센터 여명'에서 여장을 풀 후 이튿날 여명의 주요 프로그램을 체험, 영덕군청에서 김광열 영덕군수를 접견, 오찬을 함께 했다.

이들의 영덕군 방문은 지난 3월 19일, 김광열 영덕군수가 인도에서 처음 성사시킨 바나라스힌두대학교(BHU)와의 상호 협력 협약 내용에 따라 이뤄졌다.

일행은 올해 '영덕 국제웰니스페스타 2024'의 사업 내용 세부사항 등을 협의했다.

웰니스 라이프 전을 위해 인도 기업들을 추천하거나 참여 요청하는데 협의했다.

특히 Goswami 학장은 다부르(Dabur)와 히말라야(Himalaya) 등 아우르베다 관련 기업 10여 곳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천·연결해 주기로 했다.

국제웰니스아카데미를 통한 양국의 웰니스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상호 협력한다.

BHU는 아우르베다와 요가 부문의 교육과정과 실습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군은 한의와 명상프로그램을 제안, 상호 양국의 웰니스전문가 과정 지원자들의 참여를 홍보하기로 협의했다.

국내 웰니스 전문가들의 아우르베다와 요가 실습을 위한 인도 방문과 인도 청년들의 한의와 명상 실

습을 위한 한국 방문도 적극 추진한다.

김군수는 오는 10월 열리는 '영덕국제웰니스페스타 2024'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을 실어줄 것으로 당부했다.

BHU 아우르베다 학장 일행도 영덕이 국제웰니스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2022년부터 인도와 함께 진행해 온 '영덕국제웰니스페스타'는 올 10월에도 BHU 아우르베다 대학 교수와 인턴, 레지던트들이 인도 전통의학 아우르베다 체럼 부스를 운영, 한국 한의학과 적극적인 학술 교류를 한다.

김군수의 초대로 성사된 이번 만남은 인도 전통 자연의학 아우르베다를 대표하는 BHU와 영덕군이 우정을 다지는 든든한 사이로 발전했다.

무엇보다 영덕국제웰니스페스타를 넘어 영덕군이 '국제웰니스관광도시'로 도약하는데 든든한 지원군을 얻는 계기가 됐다. 조은 기자

## 울릉 농·특산물 우수성 알렸다

울릉군이 지난 5~7일까지 3일간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경북식품박람회'에 참가했다.

2024 경북식품박람회는 'Eat the 경북, Eat the Future!'를 주제로 식품비즈니스관, 푸드테크요리경연대회, 외식업 e-커머스(AI 기술도입 강연, AI 판매 시연 및 마케팅 지원) 등 식품산업과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춘 식품 전시 및 부대 행사에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참여, 지역대표 식품들을 소개한다.

군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와 함께 식품비즈니스관을 운영했다.

참여업체인 ㈜큐비엠은 울릉도 해양산수를 이용한 소금과 미네랄쇼 등을 홍보·판매했다.

군은 명이절임, 호박캐러멜, 호박엿, 호박막걸리 등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먹거리를 홍보, 울릉 식품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대외적으로 알렸다.

박람회 관람객을 대상으로 간단한 행사를 열어 울릉의 특산물을 제공하는 등 즐거거리를 선보였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경북식품박람회는 울릉의 농·특산물을 이용한 우수한 지역산품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인 장이었다. 행사를 계기로 식품산업의 다양성과 앞으로의 울릉도 지역식품 발전 방안에 참고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은환 기자

## 남한권 울릉군수, 글로벌 인재양성 앞장

울릉군은 지난 4일 울릉중학교에서 미국 투산교육청 관계자 및 학생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만남에는 울릉중교장, 울릉교육지원청 관계자들도 참석, 각국의 교육 방향과 여학생수 등을 논의 하고 이후 미국 학생들과 만나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국 투산교육청 관계자들이 각 교실을 방문, 미국어학연수(TKAP)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져 한국 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국제교류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 4년 만에 다시 재개됐다.

올 1월 울릉군 학생들의 미국어학연수(TKAP) 실시에 이은 미국 투산교육청 학생들의 울릉도 답방으로 투산교육청 관계자 4명과 학생 6명이 울릉도를 방문했다.

지난달 31일 울릉도에 입도한 미국 학생들은 지난 6일까지 중학교 정규수업 참여 및 홈스테이 생활, 관내 자연문화탐방 등 울릉도의 생활을 체험했다.

이들은 7일 부터 4일간 서울에서 경북국, DMZ 투어 등 한국의 역사를 경험한 후 귀국한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투산교육청의 울릉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 앞으로도 상호 간의 지속적인 교류로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 및 글로벌 마인드 함양 등 글로벌 인재양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환 기자



## 청송군, 이웃의 정 함께 나눠요~

정 나눔봉사단체가 주관한 '사랑의 우동한그릇' 행사가 지난 3일 청송진보시장에서 열렸다. 행사는 2022년 청송군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 농가맛집 '무꾸'의 후원으로 약 600인분의 우동을 준비, 오전 9시부터 시장을 찾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했다. 사랑의 우동봉사는 지난해 연말 부남시장을 시작으로 지난 3월 청송시장, 6월 진보시장에서 3번째 봉사활동이 이뤄졌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이웃을 향한 뜻깊은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 나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 영양군, 동학 회생 유적지 만천하에 알린 역사의 현장

동학 해월 최시형 선생... 영양은거 유허비 제막식



제막식이 진행된 일월면 용화리 일대는 해월 최시형 선생이 동학혁명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 동학경전(동경대전 등)을 구술(口誦) 재현 및 필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한 장소다.

탄압받던 동학혁명의 불씨를 살리고, 교단을 다

## 3대가 함께하는 행복공동체 청도 만들기

청도군,孝 문화 확산 앞장 2024 행복 가정 실천 개최

청도새마을부녀회는 지난 4일 새마을화관 대회 의식(3층)에서 2024 행복한 가정 실천운동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 김하수 청도군수, 김효태 청도군의회의장, 도영순 경북도 새마을부녀회장, 청도군의원과 새마을지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행복한 가정 실천하기는 청도군 새마을부녀회가 알뜰 나눔 장터 운영과 새마을 구관사업 등 부녀회

주관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기금으로 재원을 마련, 평소타의 모범이 되는 3대가 함께 생활하는 효행 실천 가정 10가구를 새마을부녀회들이 직접 발굴 표창한다.

가정의 소중함과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2015년 시작 올해로 10회째다.

행사는 조순계군 새마을부녀회장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도영순도 부녀회장의 유공자 표창 및 김하수 청도군수의 표창패 전달에 이어 조순계군 부녀회장이 새마을부녀회원들과 직접 준비한 금반지와 청도사랑상품권(10만원 상당)을 수상자들에게 부상으로 전달, 수상의 가치를 더했다. 조은 기자

## 암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은?

울진군은 올 1월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 중 하나인 HPV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한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다. 우리나라 15~34세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여성에게 발생하는 암 가운데 5번째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기에 그 중요성이 너무 크다.

HPV 감염의 가장 큰 원인인 성경험 이전에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12세가 지났어도 성경험이 없다면 예방효과가 큰 접종이다. 대상 연령인 12~17세 및 저소득층 여성 18~26세 여성들은 HPV 예방접종을 권고한다. 이정수 기자



### 영천 영주 봉화 의성 고령 성주



#### 영천시, 인재양성 장학금 행렬 잇달아

지난 7일 별빛딸기농원 장병근 대표가 100만 원, 동부동 라인덴 스고실 김소영 강사가 100만 원의 장학금을 (재)영천시장학회에 기탁했다.

임고면에 위치한 별빛딸기농원은 맛과 품질 좋은 딸기로 유명하며, 딸기 따기 체험 농원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김소영 강사는 “장학금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탁 소감을 밝혔다.

최기문 이사장은 “장학금이 지역 교육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장학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성원화학(주), 장학금 5백만원 기탁

지난 7일 성원화학(주)에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소중한 마음을 담아 인재육성장학금 500만 원을 영주인재육성장학회에 기탁했다.

영주시 문수면에 위치한 성원화학(주)은 1999년에 설립, 26년째 PE관(수도관, 전선관, 이중벽관) 제조업을 주 사업으로 수행하는 업체이다.

이태규 대표는 “꿈과 미래를 향해 노력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돼 학업에 전념하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박남서 영주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은 “기탁금은 지역사회를 이끄는 훌륭한 인재 양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 봉화군, 한방진료 사업 시작!

봉화군 보건소는 오는 27일까지 제1차 찾아가는 한방진료 사업을 시행한다.

한방진료 사업은 고령화와 만성 질환의 질병 구조와 농촌 지역형으로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한의학적 접근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의 일차 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자는 관내 요양시설 및 사회 복지 시설 이용자이며 봉화노인복지센터 외 6곳에서 한의학적 건강 진단, 한방진료, 침 시술, 건강 상담을 제공한다.

# 의성 찾아가는 통합 이동진료로 ‘함박 웃음’

찾아가는 통합 이동진료  
성공사업으로 자리매김  
350개리 마을 확대 운영



과 및 한방진료, 치매-정신건강검진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주차공간 협소로 진료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마을은 서비스 제공이 제한됐다. 하지만 이동 편의 제공으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었다.

민간 병·의원 없이 350개리 중 진료차량이 주차 가능한 150개 마을을 75개리로 나누 격년으로 이동진료를 운영하고 있다.

주차공간이 협소한 인근 275개리를 연계해, 매년 350개리 전체에 통합 이동진료 서비스를 제공,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더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4월 의성군보건소와 종합자원봉사센터 간 협약식으로 취약계층의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동 협력하고 지역 주민의 의료와 복지 만족도를 함께 높인다. 이동진료 서비스를 받은 사곡면 공경리 L이르신은 “교통이 불편, 병원에 가기 힘들었는데 좋은 사실이 갖추어진 차가 직접 찾아와 치과검진이란 스케일링도 받고, 아픈 허리에 침까지 나눠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김주승 의성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의료사각지대 지역 주민의 최상의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직접 찾아가는 통합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활력 넘치는 행복의성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 고령군, AI 차단방역 23일 행정력 총동원

고령군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지난달 23일 경남 창원군 대합면에 있는 육용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했다.

때문에 고령군은 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창원군과 연결되는 우곡면 우곡교 인접 포리교에 조류인플루엔자 통제초소를 긴급 설치·운영 중이다.

고령군 가축방역대책본부는 발생지역 반경 10km 이내 포함되는 관내 가금사육농가 16호에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공동방제단 소독차량 및 군 보유 소독차량을 동원, 가금농장, 철새도래지·하천 주변 등을 집중 소독하고 있다.

가금농가 가축질병의 경각심 제고 및 AI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지난 7일 AI 통제초소를 찾아 방역추진상황을 점검, 근무자를 격려했다.

군은 발생 시기가 아닌 여름을 앞두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만큼 관내 질병 발생이 없도록 관련 차량통제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가금사육 농가는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한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야 한다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배영배 기자



#### 봉화군, 건강플러스 행복경로당 만들기 사업

건강플러스 행복경로당 만들기 사업은 봉화 노인복지관과 연계해 보건소 사업 담당자 및 전문인력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및 교육·상담을 지원한다. 이동식 체성분 분석기를 이용한 체지방 지수(BMI) 측정 및 결과에 따른 영양·운동 상담,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금연·절주 실천 홍보, 암 검진 홍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등을 한다. 이번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심뇌혈관을 유지하기 위한 예방관리 및 건강생활실천을 습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봉화보건소는새달 19일까지 읍면 12곳 경로당 회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플러스 행복경로당 만들기 사업을 한다.

전성기 기자

## 영천시, 데이터 활용 사업 중장기 정책

#### ‘미래 데이터’ 환경 대응 스마트행정서비스 도출

데이터 기반의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한 데이터 관리, 두 번째 걸음

영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영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가 지난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보고회는 데이터 활용 부서 담당 등 50여 명이 참석, 용역업체 주식회사 다올플러스에서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시는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에 따른 신뢰성 제고와 일하는 방식의 혁신으로 통합·선제적 적극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기

본계획 수립으로 향후 3년간(2024~2026년) 추진할 전략을 도출한다.

주요 내용은 △과년도 기본계획 수행 결과 분석 △과년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현황 △과년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 △부서별 산재한 공공데이터 활용 분석과제 발굴 방안 △데이터 관련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방안 등이 있다.

보고회에서 수립한 의견은 검토 후 최종 결과에 반영, 직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에 관한 교육도 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데이터는 미래의 중요한 자원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활용 사업 중장기 정책의 토대를 마련한다. 미래 데이터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한 행정서비스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 봉화군, ‘찾놀 Free Play 버스’ 운영

봉화군이 마련한 ‘찾놀 Free Play 버스’ 운영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찾놀 Free Play 버스는 농촌 지역 아동의 건강한 놀이문화 형성과 지역 내 돌봄·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 영유아 중심 프로그램과 달리 인근 초등학교 재량휴업일에 맞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체 발달과 사회 발달에 중점을 둔 맞춤형 특별 프로그램 형식으로 운영됐다.

재량 휴업일을 맞아 놀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한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입소 아동 및 일반 아동도 참여



가능하도록 계획, 심·여가·놀이공간을 제공하며 학교 휴업일 돌봄 공백 해소에 힘썼다.

실제 지난 7일 석포 지역 초등학생 60여 명을 대상으로 석포행복지역 아동센터와 연계해 찾아가는 놀이 ‘찾놀 Free Play 버스’를 운영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

전성기 기자

## 귀농인의 집에서 기분 좋은 첫 출발!

#### 성주군 귀농인의 집 입주 정성호씨 가족 환영 행사

성주군에 모처럼 입주자 환영행사가 열렸다.

지난 4일 초전면 봉정리 ‘귀농인의 집’에서 이장, 마을 주민 등이 방문, 입주자 환영행사를 가졌다.

초전면 봉정리 귀농인의 집은 지난해 신축했다. 첫 입주한 정성호(68)씨 가족은 구미에서 살다 포도 농사를 짓기 위해 귀농했다.

김주섭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입주자와 현장에서 소통, 귀농인의 애로사항과 영농에 대한 문제점을 꼼꼼히 살폈고, 이장과 마을 주민들에게 “마을 주민들과 융화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귀농인의 집’은 성주군으로 전입한 귀농인이 주

택을 구할 때까지 1년 동안 임시주거 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귀농인의 집은 빈집을 새단장, 이동식주택 구입 등으로 조성 후 7년간 귀농인의 집으로 활용된다.

현재 성주군에는 8곳(대가, 벽진, 용암, 초전)이 운영 중이다.

군은 안정적인 고소득이 가능한 시설참외가 특화돼 있어 수려한 관광자원, 인근 대도시로의 접근성이 용이해 귀농·귀촌 선호 시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귀농인의 집 등 성주군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분은 성주농업기술센터 귀농경영팀에 방문 또는 전화(054-930-8041~43)상담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성주농업기술센터 누리집(<https://www.sj.go.kr/sj-atc>)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재훈 기자

## 영주시, 기후위시대 탄소중립 생활실천

#### 제29회 환경의 날 기념식 녹색실천 참여 유도 앞장

제29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가 7일 영주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주제는 ‘기후위시대, 탄소중립 생활실천’이다.

행사에 시민, 환경단체, 기업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환경보전 실천에 앞장서 온 유공자 표창, 기념사, 환경시 낭독 등 본식 기념행사와 더불어 색소폰 연주, 모듬북공연, 화학과 발생 시 행동요령 등 식전 행사가 진행됐다.

기후변화 대응 동영상과 경북119산불특수대응

단산불예방 홍보활동 및 사진 전시로 자연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하고 녹색실천 참여를 유도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생활실천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행사가 환경보전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금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녹색강국 대한민국, 녹색도시 영주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유엔이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을 다짐하며 6월 5일을 기념일로 제정했다.

전성기 기자



# Opinion

신문 및 이 달 라 지 면 도 달 라 제 야 합 니 다 대구 광역 일 보 는 독 자 습 까 지 생 각 합 니 다



대구광역시일보 www.dgy.co.kr  
등록번호(일간) 대구가 00016  
dgynews@daum.net

대표 (053) 253-0000 FAX (053) 253-0041  
대우시 중구 대평로286(2층)  
발행인 김영숙 편집인 김성웅  
부사장 조여은 편집국장 김현석  
지역번호 053  
대표 257-0000  
부사장 254-0400  
편집국장 257-0200  
경영지원 267-5000  
광고국 267-0800  
사회부 253-0060  
정경부 253-0061  
문체부 253-0065  
지방부 253-0064  
편집부 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칼럼

## 천년고도 경주서 APEC정상회의 열린다면

주낙영  
경주시장



마일-러-중 세계 4강을 비롯해 아태지역 21개국 정상-각료-언론 등 2만여 명이 한국을 방문하는 경제 번영과 평화 구축의 대규모 국제행사인 APEC 정상회의가 2025년 11월 한국에서 열린다.

우리나라 국격은 물론 외교-경제-문화적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 한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되어야 한다.

경주는 신라 1000년의 고도로 찬란한 역사문화가 살아 숨쉬고,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다.

대한민국 관광 1번지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4점, 국가지정 문화재 360점 등을 보유한 한반도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다.

일각에선 유치 3파전을 벌이고 있는 경주, 인천, 제주 중 유일한 지방 중소도시는 경주뿐이라는 이유로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을 까하는 우려를 표한다.

그러나 경주는 2005 APEC 에너지장관회의, 2012 APEC 교육장관회의, 2015 세계물포럼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노하우가 풍부하다.

무엇보다 경주는 APEC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세계 각국 정상의 경호와 안전, 보안을 위한 입지적 조건도 최고다.

정상회의가 열릴 보문관광단지 회의장과 숙박시설 등이 3분 거리에 위치해 이동시간이 매우 짧다.

타 후보도시와 달리 바다에 접해 있지 않고 호리병처럼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정상 경호와 안전에 완벽한 통제가 가능하다.

단적으로 2005년 APEC이 부산에서 개최될 때도 한미정상회담은 보문관광단지에서 열렸다. 경주화백컨벤션센터 회의장 주변 3km 이내에 103개소, 4463실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40평 이상의 정상용 5성급 호텔 및 스위트룸 등이 10개소, 223실로 숙박도 최고 시설을 자랑한다.

1시간대의 김해국제공항 등 4개 공항과 서울에서 2시간대의 KTX 경주역, 경부고속도로, 3971대의 셔틀버스 운영 등 사통팔달 완벽한 교통 접근성도 갖추고 있다.

경주는 영남권 산업벨트의 중심 허브 도시다.

한국수력원자력 분사, 원전 연관시설, 소형 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 미래차 e모빌리티와 인근 울산(완성차, 조선), 포항(포스텍, 2차전지), 구미(반도체, 전자), 안동(바이오) 등의 첨단산업과 연계한 투자 유치, 원전 세일즈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현장을 공유할 수 있는 곳이다.

APEC이 지향하는 무역투자 자유화, 혁신 디지털 경제, 포용적 성장의 3대 비전 실현이 부합하는 곳이다.

APEC이 개최될 11월은 형형색색의 단풍 최절정기로 세계 정상과 영부인들이 한복을 입고 불국사, 동궁과 월지, 대릉원 등에서 찍은 사진이 전 세계에 소개된다면 그야말로 감동 드라마로 세계 이목이 경주와 한국에 집중될 것이다.

APEC 경주 유치는 국내의 관광객 증가 등 생산유발효과가 1조886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8852억원, 취업 유발효과 1만4438명을 비롯해 국제 MICE 관광도시 위상 제고 등 경주의 미래 100년 대계를 앞당길 마중물이 될 것이다.

경주시는 6월 APEC 유치 도시 결정을 앞두고 타 도시와 차별된 전략과 준비로 정상회의의 최적 도시임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다.

경주의 강점을 최대한 어필하여 반드시 유치가 성공해 경북도와 경주시를 전 세계에 알리고 APEC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공 롤모델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오늘의 정치

## '대북송금 의혹' '실체적 진실'이 됐다



박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을 대북 송금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명확히 판단하며 중형을 선고한 것임이

다. 사필귀정이다.

오늘의 결과를 예견이라도 하듯 그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솔하게 드러난 재판방해 공작은 다양하고도 치졸한 방법으로 자행됐다.

이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련을 주장했다가 돌연 말을 바꾸었고, 이후 검찰 솔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선전과 선동으로 수사-재판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려 했다.

민주당은 특히나 노골적으로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재판 중인 사안을, 그것도 1심 판결을 불과 나흘 앞두고선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을 발의하기까지 했다.

대북송금 사건의 '피의자 이재명 대표'를 위해 두터운 방탄막을 세우던 민주당은 끝내 반헌법적인 특검법까지 발의하며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사법 방해 행위를 자행했다.

게다가 특검법이 관철되지 않으면 사건 관련 검사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검토 중이라는 말을 흘리며, 공공연한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

## 국정이 구명가게입니까?



황영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오늘(6월7일) 기자회견에서 액트시오 측은 본인들의 본사가 개인 자택임을 인정했다.

상주 직원도 거의 없다고 한다.

액트시오 측은 성공확률이 높다고 하더니, 갑자기 실패확률이 80%라며 면피성 밀방갈기도 잊지 않았다.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가 누적되어 있는

사실도 못 찾았다고 한다. 동해 심해 가스전이 '장래성 없다'고 평가한 호주의 최대 석유개발회사인 '우드사이드'와 본사를 개인 자택에 둔 '액트시오' 둘 중 누구의 말이 더 신뢰가 가는지 삼척동자도 다 알 내용이다. 거기에 더해 한 국석유공사는 기밀 유지 때문에 액트시오에만 분석을 의뢰했다고 한다.

한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내용의 근거가 자택을 본사로 둔 회사의 보고서 하나 뿐이냐니 참으로 처량하지 않습니까?

기자회견 이후 한국가스공사의 주가는 최근 10년 중 최대폭의 낙폭을 기록하는 등 유관 업체들의 주가가 폭락에 폭락을 거듭했다.

동네 구멍가게도 이렇게 운영하지 않는다. G7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국가에 전혀 맞지 않는 국정 운영이다. 내키는 대로 현세를 투입해 국면을 전환 시키겠다는 솜씨가 짝다.

윤석열 대통령은 "140억 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지만, 실상은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범위가 예상된다.

## 나의제언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반드시 숙지하자



문정환 청송소방서장

벚꽃이 피고 지는 파스한 봄을 지나서 어느덧 무더운 여름을 향해 가고 있다.

날씨가 더워지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강과 계곡으로 향하고, 그에 따라 수난사고 발생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최근 청송에서는 5월 초에 한 50대 남성이 다슬기를 주우러 갔다가 실종되었던 수난사고가 있었으며 물놀이 또한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에 예방법을 숙지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물놀이를 가기 전 그리고 휴가 중에 날씨 정보를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7월부터 9월까지 장마 또는 태풍의 영향이 집중되는 기간이다.

장마와 태풍은 강과 계곡에 있는 물을 갑자기 불어내게 만들며 또는 산사태를 발생시킨다.

사전에 날씨 정보를 확인 후 물놀이를 계획해야 하며, 장마 또는 태풍이 예상될 때는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둘째, 물놀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처하는 요령을 숙지한다.

수영 전에는 준비운동을 하고 입수할 땀 심장에서 먼 위로부터 들어가야 한다.

물놀이 중 소름이 돋고 피부가 땅긴다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한다.

만약 주변에 긴급상황 발생 시 구명환이나 구명줄이 있다면 던져주고, 구명 기구가 없다면 주변에 긴 막대를 이용하거나, 패트병이나 아이스박스를 던져 부력을 이용하여 떠 있게 해주면 긴급상황에서 훌륭한 구조 기구가 될 수 있다.

셋째, 물놀이 시 구명조끼 등과 같은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물놀이를 즐겨야

하며, 119구조대나 안전요원이 없는 계곡, 강변 등에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발견한 경우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무모한 구조를 금하고, 직접 구조하기보다는 주위 사람들에게 사고 사실을 큰소리로 알려 도움을 요청한다.

추가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한 후에 의식 및 호흡이 없다면 무엇보다 119에 빠른 신고가 중요하며 구급대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최근에는 영상통화로 119상황실 근무자가 방법을 잘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예방수칙을 모두 숙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항상 조심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언제나 안전사고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여름철 물놀이를 떠나기 전 충분한 대비와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켜 즐거운 여름 휴가를 보내길 바란다.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쾌적하고 행복한 도시

# 살고 싶은

도전하는 청년

활기찬 노후

꿈을 키우는 아이

행복한 가정

내게 딱 맞는 인구정책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누가 뭐라해도 신라천년의 고귀한 역사가 살아숨쉬는 경주다

APEC 포용적 성장가치 지방균형발전 최적모델 행사장 반경 10km 이내 숙소 1만 3265실 보유... 인프라 충분히 갖춘 경주



경주는 '신라 천년' 고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한반도 문화유산의 보고 한국 5천년역사 세계에 알리고 한국발전상 공유 유일한 도시가바로 경주

2025년 11월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유치에 모든 사활을 건 경주시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심정으로 최종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주는 유치 후보도시 가운데 유일한 기초자치단체이다. 경주시가 지난 7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계획 현장발표에 후보도시 단체장들이 총출동했다. '마지막 관문'인 최종 프레젠테이션(PT)이다.

이날 경주시는 경주만의 매력과 강점을 집중적으로 부각, 개최지로서의 최적 조건과 경주시민의 열망을 설득력 있게 피력했다. 주낙영(사진) 경주시장은 최종 프레젠테이션(PT)에 직접 발표자로 나서 경주의 당위성과 강점을 집중 알렸다. 프레젠테이션에는 김석기 국회의원, 이철우 경북지사로 함께했다. 경주 개최에 강한 의지와 경주선정에 온 힘을 보탤다.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는 경주**  
이철우 경북지사는 기초발안에서 경쟁후보도시 가운데 유일한 기초자치체인 경주에 힘을 실어 줄 것을 부탁하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주변에 정상용 5성급 호텔, 리조트 등 103개소 4463실의 숙박시설(정부대표단 수요대비 157%)을 보유하고 있는 상세 현황을 설명하면서 경주 숙박문제를 일축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는 신라 천년고도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시이자 한반도 문화유산의 보고로 대한민국 5천년 역사를 세계 속에 알리고 한국의 발전상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이며, APEC의 포용적 성장가치와 지방균형발전에 최적 모델은 경주뿐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정상회의가 열린 보문관광단지에는 회의장과 숙박, 전시장 등이 3분 거리로 이동이 매우 짧으며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타 후보도시와 달리 바다와 접해있지 않으며 보문관광단지 전체 1200만㎡를 민간인출입통제구역으로 설정, NGO 등 외부경호에 요새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5년 APEC이 부산에서 개최될 때 한

미정상회담은 보문관광단지에서 열린 사실을 강조했다. 보문관광단지 일대 178만㎡가 2022년 비즈니스 국제회의의 복합지구로 지정돼 적은 비용으로 도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무엇보다 50분대의 김해국제공항 등 4개 공항(군사3, 민간 1)과 KTX·SRT 등 우수한 교통망도 선보였다.

**영남권 산업벨트 중심허브 도시**  
G20 재무장관회의, APEC 교육장관회의, 세계물포럼,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등 다양한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의 풍부한 노하우와 그간 멕시코 로스카보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인도네시아 발리, 베트남 다낭 등 역사·문화 중 소도시 성공 개최한 사례를 들어 경주의 당위성을 재강조했다. 경주는 대한민국 산업화를 일구어 낸 성장축의 중심에 있다. 때문에 주시장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상을 공유할 수 있는 최적지로 한수원, 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포항(포스텍, 이차전지), 울산(완성차, 조선), 구미(반도체), 안동(바이오) 등으로 이어지는 영남권 산업벨트의 중심허브 도시"를 집중 강조했다.

지난해 9월 APEC 정상회의의 경주유치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불과 85일 만에 25만 경주인구보다 약 6배 많은 146만 3874명이라는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은 그만큼 경주가 최적지로 손색이 없다는 반증임을 피력했다. 주시장은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국가적인 엄청난 행사의 성공개최를 위해 경호·안보, 숙박, 회의·전시, 항공, 파급효과 등 모든 분야에서 경주가 탁월하다. 반드시 유치해 경주는 물론

경북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고 APEC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공 톨모델로 승화시키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경주 숙박시설 넘치고 넘쳐**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은 경주뿐이라는 자신감을 보였다. 경주시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장 반경 3km 내 숙소가 4463실, 10km 내 1만 3265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7월 후보도시 중 일찌감치 APEC 정상회의의 유치에 나선 경주시는 36개월의 준비 기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시는 지난달 20일 진행된 개최도시선정위원회의 현장실사에서도 모든 분야에서 가능한 준비를 완벽하게 끝냈다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경주시가 여타 경쟁 도시보다 단연 우위를 보이는 분야는 대한민국 첫 번째 역사문화도시로 다져온 국내 관광1번지 명성과 이에 따른 기반 시설이다.

경주는 이미 2005 APEC을 통해 검증받은 김해국제공항은 물론 APEC교육장관회의, 세계물포럼 등 다수의 국제회의를 개최한 경주화백컨벤션센터를 포함한 세계정상들의 경호에 최적화된 보문관광단지 등 우수한 교통망과 이미 차고 넘치는 마이스 기반시설 자원을 보유한 도시다.

경주에서 불과 1시간 거리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은 군사목적 공항이라는 특성 상 해외 정상들이 군 시설을 통해 출입국할 경우 일반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고의 선택이 될 전망이다. 경주는 충분한 국제회의

기반 시설과 교통 인프라를 갖췄을 뿐 아니라 최고의 숙박시설도 자랑한다.

주 회의장이 될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반경 3km 내 숙소 103개, 4463호실을 갖추고 있다. 반경 10km 내 숙소 1333개소, 1만 3265호실을 보유하고 있다.

APEC 개최도시선정위원회 현장실사단도 경주시가 실사 당시 실현 가능한 APEC 정상회의 개최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가진 분들이 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릴 당시에는 대학교 기숙사를 숙소로 사용했고, 멕시코의 나스포카스는 인구 6만여 명이 있는 관광 도시지만 마찬가지로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강조했다.

APEC은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아태 지역 21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 최대 지역 경제협력체이다.

APEC 정상회의는 각국 정상과 각료, 기업인 등이 참석하는 연례회의이다.

2005년 부산 이후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7일 선정위 2차 회의를 열어 후보도시 3개를 선정했다.

같은 달 20~22일 사흘간 경주-제주-인천 순으로 회의의 시설과 숙소, 공항 시설과 교통, 경호와 안전 등 제반 여건을 평가하는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외교부는 실사 결과와 최종 PT 등 종합 평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20일 개최 도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용 기자  
윤용찬 기자